

문은석 선교사 사역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지가 엿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하루 하루가 너무도 빨리 지나가기에 세월의 속도감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역 소식을 쓸 때마다 가급적 감사하고 즐거운 내용들, 그리고 많은 영적인 열매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인데 올해는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기에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기 전부터 있었던 3가정이 여러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이어서 한 두 가정이 더 교회를 떠남으로 인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약간의 소동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역자들이 더 한 마음으로 뭉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통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서적 안정감을 찾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1.교회 조직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담임목사, 부목사 2명(한국선교사, 중국인목사), 전도사 1명(중국인) 사역자(집사) 5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직 한국교회의 당회와 같은 조직적 구성은 아니지만 조금씩 행정조직을 만들어가면서 전통적인 개혁주의 장로교회로 성장해 가고자 합니다.

그와 동시에 올 해 들어 새롭게 시작한 것은 바로 선교헌금입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일조헌금, 선교헌금 봉투를 새롭게 만들어서 준비된 헌금을 드리도록하고 지속적으로 선교헌금을 강조하여 신앙과 봉헌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역의 비용을 교회 일반재정이 아니라 선교헌금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장기적으로 선교사 단독 파송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성경읽기와 말씀묵상

말씀묵상과 성경읽기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기에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일설교도 말씀의 묵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읽기는 모든 성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데 말씀묵상은 여전히 쉽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올 한 해는 끝까지 밀고 가려고 합니다. 단 한명이라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묵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면 그 또한 소중한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지난 6월 1일에는 제3회 성경 퀴즈대회가 있었습니다. 신명기서를 본문으로 하여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대회를 진행하였고,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참여하여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전도와 선교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은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치앙마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중국인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길거리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관계전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의 일환으로 올해는 설날과 단오절에 전도행사를 했습니다. 다양한 중국의 전통음식, 그리고 복음, 간증, 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중국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발을 내딛게 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앙라이에 있는 바산교회도 월 1회 정기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중국문화를 가르치며 동시에 사도신경을 비롯한 기독교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보다 쉽게 선교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치앙마이 내에서 할 수 있는 선교사역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4.평신도 제자훈련

제3기 확산반 성경공부가 진행중입니다. 현재 8명의 형제자매들이 매주 화요일에 모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작년 12월에 세례를 받은 자매들도 있습니다. 오래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봉사자들이 부족한데 이 자매들이 그 빈공간을 메꾸어 가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기쁨으로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6월 23일부터는 작년에 이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주제하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결혼, 재정, 비전, 선교 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개인적인 사역과 기도제목입니다.

1)2025년도 주태 한인선교사회 북부지회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1년의 봉사직인데 가장 큰 행사가 북부지역 선교사 수양회입니다. 6월 9-12까지 진행되는데 행사 전반에 있어서 관리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세요.

2)하나님께서 평생을 함께 할 동반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지금은 한국과 치앙마이에 따로 떨어져서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조성하셔서 내년부터 함께 치앙마이에 살면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3)시간이 흘러갈수록 중국인 교회사역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언어적, 영적, 목양적 측면에서 자신감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더 깊은 기도와 성령충만한 상태에서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세요.

2025년 6월 5일

문은석 선교사